



무디스,

일본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

이상우 선임연구원

■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(moody's)는 8월 24일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2002년 이후 9년 3개월 만에 현재 Aa2에서 Aa3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함.

- 무디스의 Aa3 등급은 상위 4번째 등급으로 S&P가 일본에 부여하고 있는 AA-와 같은 수준이며, 이에 따라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피치만 상위 3번째 등급인 AA를 부여하고 있음.
- 무디스는 신용등급 하향 조정 배경으로 일본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문제가 일본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, 국내총생산(GDP) 대비 부채 규모도 축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함.
 - 일본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10년 말 기준으로 220% 수준으로 지난 3월 대지진에 따른 일본 정부의 막대한 부흥채권 발행으로 동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을 지적함.
 - 또한, 과거 5년간 일본 총리의 잦은 교체 등 일본의 정치적 불안과 최근 디플레이션을 악화시킨 일본 원전사고 문제 등도 지적함.

■ 다만, 무디스는 일본의 경우 저금리와 투자자들의 신뢰로 지속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힘.

- 이에 앞서 S&P는 지난 1월 일본의 신용등급을 AA+에서 AA-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, 지난 1월과 8월 15일 무디스와 일본의 신용평가회사인 R&I도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음.

■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대해 일본 총리가 즉각 유감을 표시한 가운데, 일본 재무상도 일본 국채의 신뢰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.

- 한편, 무디스는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이후 대형 시중은행 3개사와 12개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함.

(일본경제, 마이니치신문, 산케이신문, 시사통신, 로이터, 8/24 뉴스 종합)